

피아니스트 손민수 리사이틀 개최

12월 18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연말특별공연

피아니스트 손민수 리사이틀이 오는 12월 18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재)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의 연말특별공연으로, 올해는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Beethoven & Liszt (베토벤&리스트)'라는 타이틀로 깊어가는 겨울밤 서정적인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부초니, 클리블랜드, 루빈스타인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했으며 2006년 캐나다 호튼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로 입상, 호튼스 프라이즈를 수상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며 여러 매체와 청중의 호평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손민수의 카네기홀 공연에 대해 '사려 깊은 상상력과 시적인 연주'라며 극찬했다. 또한 손민수는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러셀 셔먼을 사사했으며, 5년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2015년부터 모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돌아와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도 연주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손민수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와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을 무대에 올린다. 1부를 여는 첫 곡은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



피아니스트 손민수 리사이틀 포스터.

자 베토벤 3대 소나타 중 하나로 꼽히는 '14번 월광 소나타'로 '베토벤 스펙트리스트'로 불리는 손민수만의 섬세한 터치와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다. 이어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말년의 곡으로, 베토벤 최후의 역작이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교량적 역할을 한 후기 소나타다. 2부에서는 손민수의 독보적인 기교와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중 6곡을 선보인다. 이 곡은 난곡(難曲)으로 유명하며 극적인 음악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리스트 피아노 솔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다.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1부, 풍부한 감성과 기교가 돋보이는 2부의 흐름을 통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성영근 관장은 "가나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최고의 공연을 준비했다"며 "대면 공연으로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이번 공연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전석 3만원으로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연 예매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거리두기 후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특강·도예 체험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시민도예대학, 김동수 시인, 이진옥 장인 초청

남원의 고전소설문학관과 시민도예대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학특강과 도예 체험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지난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전소설문학관과 시민도예대학, 참여 학교나 단체의 장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도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여자를 선착순 30명 이내로 한다. 문학특강에는 백제대 명예교수인 김동수 시인과 도통초 이문숙교장이 함께한다. 도자기체험에 이진옥 청화백자 장인 외 6인의 전문 강사가 나선다. 25일 고전소설문학관에서 '한국고전소설의 성지 남원'을 주제로 문학특강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이진옥 장인의 지도로 자작



시나 그림을 청화안료로 점시에 표현하는 체험교육이 시민도예대학에서 진행된다. 고전소설문학관 양규창학예사는 "일본도 자기의 원류가 된 남원의 도예 체험과 문학의 도시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고장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 민속음악 깊고 진한 멋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12월 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서 송년국악잔치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남원지역 전문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송년국악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특유의 입담과 관객 친화적인 진행이 돋보이는 소리꾼 방수미(국립민속국악원 참극단 지도단원)가 사회를 맡고,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과 기악단 및 참극단을 비롯해 남원의 대표적인 전문예술단체인 남원시립국악단과 남원농악보존회가 함께 해, 기관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관객들에게 송년의 의미를 담은 우리 민속음악의 깊고 진한 멋을 펼쳐내고자 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4월 초연했던 2021년 대표창극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의 감동을 다시금 전하고, 기악단은 남도곡의 다채로운 선율과 故박병천 명인의 구름기락을 기악화한 〈걸음마다 꽃이 피소〉를 통해 관객들이 듣는 걸음걸음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며 '인생'과 '평온'을 전한다. 남원시립국악단은 민속악의 꽃이라 불리는 기악 독주곡 〈산조〉를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아쟁, 장구 등의 합주 형태로 편성해 각 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음향을 통해 화합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어 '신민요' 연곡 무대로 걱정, 근심은 멀리하고 한바탕 흥을 돋울 예정이다. 남원을 대표하는 남원농악보존회(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는 2022년의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가는 신명나는 '관공' 무대를 펼쳐 관객에



게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를 담아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이 끝난 후 '신년달력 나눔' 행사를 마련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따뜻함이 담긴 연말의 정취를 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예약은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박수무곡' 무료 공연

12월 10일 전통공연예술 우수콘텐츠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통공연예술 우수콘텐츠 공연으로 오는 12월 10일 오후 7시 '박수무곡'을 선보인다. 이번 무료공연은 고래야의 10주년 기념 레퍼토리 공연으로 말 그대로 박수와 춤을 위한 음악 공연이다. 한국장단을 활용한 창작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이 다양한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길 수 있다. 특히 파타 용품으로 사용되는 장난감(핸드클래퍼)을 이용한 연주 등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풍성하다 음악적으로는 일렉기타의 다양한 질감을 활용해 전통음악과 사이키델릭한 밴드 사운드의 조화를 이룬다. 고래야는 3명의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와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월드 퍼커셔니스트로 이루어진 국악·월드뮤직 그룹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80 안심률,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



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30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배부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은지 학예연구사, 올해의 박물관인상

전주대학교는 지난 24일 열린 (사)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박은지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활성화 통한 지역문화의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인 '올해의 박물관인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은지 학예연구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주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획전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전시와 같이 보편적 인간의 삶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전시를 주관, 박물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박은지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의 발전과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박물관인으로 평생 남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호흡 맞춰 노래로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3시~6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